스님은 갈 곳 없는 길을 가고 길엔 온통 낙엽뿐이다

둘레길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보광사는 1788년 원담 스님이 창건한 신원사가 시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도량을 1979년 정일 스님이 중창했다. 법당 마당으로 소나무 그림자 하나가 지나간다.

⑮ 북한산 순례길 그리고 보광사

"가을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다란 잎새 위에 / 보릿단 속 생쥐 위에도 머뭅니다 / 머리 위 마가목 잎이 노랗게 물들고 / 이슬 젖은 산딸기 잎새도 노랗습니다. / 사랑이 이울어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 슬픈 우리 영혼은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 헤어집시다. 정열의 계절이 우리를 잊기 전에 / 그대 숙인 이마에 입맞춤과 눈물을 남기며" 북한산 둘레길 2구간 '순례길'에 들어서면 작은 안내판에 예이츠의 시 '낙엽은 떨어지고'가 쓰여 있다. 그리고 길은 '낙엽' 뿐이다. 11월 7일 그 길을 걸었다.

북한산 둘레길 2구간 '순례길'은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솔밭근린공원에서 시작해서 이준 열사 묘역 입구까지 걷는 2.3km의 길로, 모두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다. 순례길은 일제강점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 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얼이 서려 있는 공간이다. 이준 열사의 묘역과 17위의 광복군 합동 묘소가 있고, 12기의 독립유공자 묘역, 그리고 국립 4.19 민주묘지가 있다. 시작 지점인 솔밭근린공원은 덕성여자대학 길 건너에 자리한 소나무 숲 공원이다. 공원에서 둘레길 안내판과 보광사 가는 길 안내판을 따라 약 200쯤 걸으면 '순례길' 간판이 나오고, 보광사 가는 길과 나누어진다. 순례길에는 보광사가 있다. 순례길 간판을 따라 길을 시작하면 보광사 가는 길과 나란히 걷게 된다. 꼬불꼬불한 길이 많아서 길이 지루하지 않고, 경사가 급한 곳은 별로 없어서 걷기 좋다.

바람이 숲을 쓸고 지나간다. 바람에 꺾인 잎새들이 다시 숲에 내려와 쌓인다. 온통 낙엽이다. 잎은 거기, 바람은 거기, 숲은 거기. 천년이나 한 철이나 한 장 낙엽이기는 마찬가지.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간. 쌓이는 낙엽을 밟으며 길을 시작했다. 밟히는 낙엽마다 시가 적혔고, 밟힌 시들은 가슴에 와 쌓인다.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가을은 끝나지 않았으리. 이 낙엽을 밟지 않았다면 예이츠는 없었으리. 길의 이름은 '순례'다.

약 300m 쯤 걸으면 국립 4.19민주묘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나타난다. 묘역이 한눈에 들어왔다. 차가운 역사인가. 뜨거운 역사인가. 뜨거운 영혼들이 차가운 땅에 누워있다. '희생당한 290명의 영령들'이 잠들어 있다고 안내판에 적고 있다. 그리고 1995년 4월 18일 '국립묘지'로 승격됐다고도 적고 있다.

전망대에서 약 200m 쯤 걸었을 때쯤 목탁소리와 독경소리가 들려왔다. 보광사다. 둘레길에서 바로 보광사로 들어갈 수 있다. 보광사는 1788년(정조 12)에 금강산에서 수도한 원담 스님이 창건한 신원사가 시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도량은 남은 당우 몇 채만으로 법등을 이어오다 1979년 남산당 정일 스님이 포교의 원을 세우고 주석하면서 불사를 시작했다. 1980년 보광사로 절 이름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대승경전산림법회와 참선법회를 열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법을 전하고 있다. 산문을 다시 열었던 정일 스님은 2004년 열반에 들었다. "이제 갈 곳 없는 길을 가야 한다." 제자가 물었다.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스님이 마지막 육신의 입으로 말했다. "창문을 열고 자세히 살펴보아라." 기자는 스님의 다비가 있던 날 스님을 처음 뵈었다. 작은 비가 왔었다.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읽고 불가에 귀의한 스님은 그 날 그렇게 비에 젖은 길을 걸어서 갈 곳 없는 길을 갔다.

법당으로 오르는 길목엔 철모르는 꽃봉오리를 물고 목련이 하나 서있고,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백구 한 마리가 법당 앞에 앉아 있다. 도량을 안은 산기슭은 단풍이 들었다. 법당 마당으로는 소나무 그림자 하나 지나간다. 고요하다. 법당의 문소리도 없고, 길에서 들었던 목탁소리도 사라졌다. 먼 숲에서 산 새 소리만 건너온다. 도량을 나와 다시 둘레길을 걷는다. 다시 '순례'다. 신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지난다. 밝혀야 할 역사인가. 숨겨야 할 역사인가. 자랑스럽게 살다간 그들의 생몰연대 속에 부끄러운 역사가 들어 있음을 아는 한 그들과 역사의 대비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일 것이다.

길이 거의 끝나갈 때 쯤 다시 작은 안내판에 예이츠의 '낙엽은 떨어지고'가 쓰여 있다. "헤어집시다. 정열의 계절이 우리를 잊기 전에…" 예이츠는 헤어지자고 말했고, 스님은 갈 곳 없는 길을 간다고 했다. 예이츠는 정열의 계절이 잊기 전에 헤어졌을까. 스님은 어느 길에 있을까. 오늘 '순례'라는 길을 걸었다. 스님은 갈 곳 없는 길을 간다고 했었다. 길엔 온통 낙엽뿐이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순례길에서는 국립 4 · 19묘지가 한눈에 보인다.

예이츠의 시가 길목을 열어주는 순례길에는 온통 낙엽이다.

〈북한산 둘레길 '순례길'〉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1인용 : 58만원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2인용
1인용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